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美 경제, 3분기 성장했지만 앞으로 험난할 것
- ◇ (초점)-올해 美 대선 여론조사를 2016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
- ◇ (초점)-국고채 2년물 발행, 3년 국채선물 바스켓 조정·5년 선물 활성화로 이어질까
- ◇ (초점)-위안화 앞지르는 원화 절상..시장 쏠림 징후일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치러진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유세에 모인 군중들 모습이다. (로이터/조나단 언스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3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35.1	-0.2%	1.9%	-3.5%	유로	1.1647	-1.8%	3.9%	-2.3%
100엔 대비	1,085.8	-0.8%	-2.2%	-4.4%	엔	104.64	0.0%	3.8%	0.9%
유로 대비	1,323.7	1.1%	-2.3%	-1.3%	위안	6.7161	-0.5%	3.7%	-1.3%
위안 대비	169.79	-0.7%	-2.4%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6,501.60	-6.5%	-7.1%	22.3%
코스피	2,267.15	-4.0%	3.2%	7.7%	나스닥	10,911.59	-5.5%	21.6%	35.2%
코스닥	792.65	-1.9%	18.3%	-0.9%	S&P500	3,269.96	-5.6%	1.2%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70.43	-2.5%	3.2%	15.8%
국고채 3Y	0.935%	2.5bp	-42.5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35%	4.4bp	-24.5bp	-40.4bp	미국채 2Y	0.156%	0.1bp	-140.5bp	-93.7bp
국고채10Y	1.546%	5.1bp	-13.7bp	-26.5bp	미국채 10Y	0.874%	3.2bp	-103.6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5.79	-10.2%	-41.4%	34.5%	한국 5Y	25.4bp	1.4bp	4.4bp	-17.0bp
금(현물)	1,877.95	-1.2%	23.8%	18.3%	일본 5Y	16.6bp	0.0bp	-1.1bp	-4.0bp
TR상품지수	2,595.79	-0.7%	4.4%	4.8%	중국 5Y	39.2bp	2.7bp	8.5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 월 2 일(월)>

- IHS 마킷, 한국 10 월 제조업 PMI(09:30)

<3 일(화)>

- 통계청, 10 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녹실회의(08:00)
- 한은, 10.14 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4 일(수)>

- 한은, 10 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 통계청, 8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2:00)
- 통계청, 9 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5 일(목)>

- 한은, 9 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1 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기재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6 일(금)>

- 기재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10:30)

<8 일(일)>

- KDI, 경제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 월 2 일(월)>

- 일본, 10 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10 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유로존, 10 월 마킷 제조업 PMI 최종 (18:00)
- 미국, 10 월 마킷 제조업 PMI 최종 (23:45)

<3 일(화)>

- 미국, 제 46 대 대통령 · 상하원 선거
- 미국, 9 월 건설지출 (00:00)
- 미국, 10 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00:00)
-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12:30)
- 미국, 10 월 공급관리협회(ISM) 뉴욕지수 (23:45)
- 일본 휴장

<4 일(수)>

- 미국, 9 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 공장 주문 (00:00)
- 일본, BOJ 9 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 중국, 10 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9 월 생산자물가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 월 ADP 전국고용동향 (22:15)
- 미국, 10 월 마킷 서비스업 PMI 최종 (23:45)
- 미국, FOMC 금리 결정 회의 (~5 일)

<5 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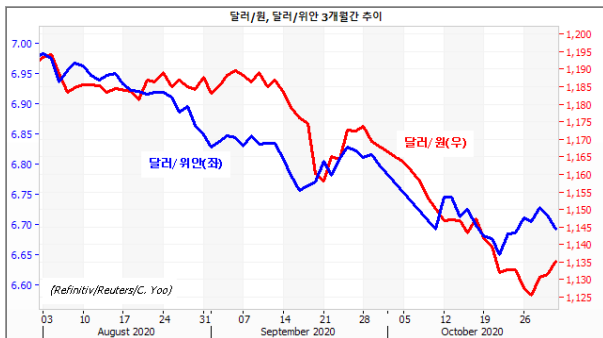
- 유로존, 9 월 소매판매 (19:00)
- 영국, 영란은행 금리결정 발표 · 통화정책보고서 공개 (21:00)
- 미국, 10 월 챌리저 해고건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3 분기 노동비용 잠정치 (22:30)

<6 일(금)>

- 미국, FOMC 금리결정 발표 (04:00)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자회견
- 일본, 9 월 가계지출 (08:30)
- 호주, RBA 통화정책 성명서 발표 (09:30)
- 미국, 10 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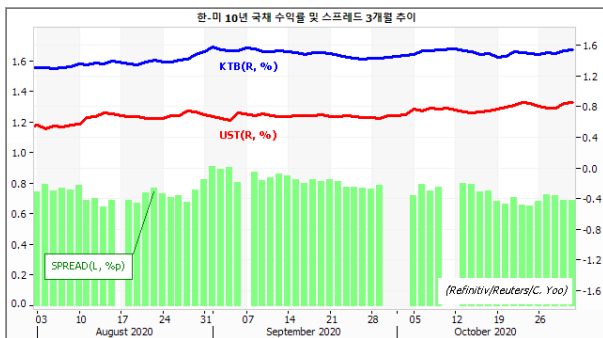
<외환시장 동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주간 전망은 생략합니다

<채권시장 동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주간 전망은 생략합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그래프/분석)-美 경제, 3분기 성장했지만 앞으로 험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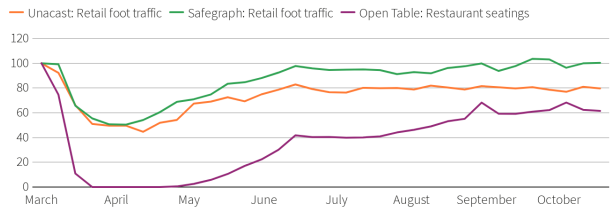
워싱턴 (로이터) -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11월 대선 이후 혼란 가능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이다.

지금의 성장은 불안한 기반 위에 놓여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남은 기간의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방 정부들은 새로운 외출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 실시되는 외출제한은 팬데믹 초기 만큼 엄격하지는 않은데 이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Retail in real time

High frequency data has become important to policymakers amid a fast-moving pandemic. Data on retail foot traffic and restaurant seatings show changes in economic activity. The trend has mostly been f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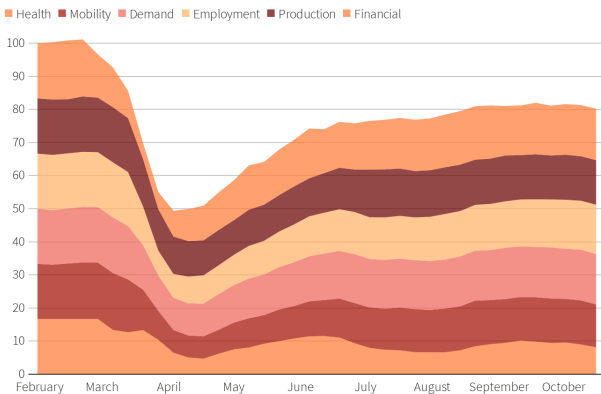
Note: All data indexed to March 1. Opentable data reflect weekly average percent of seated diners versus 2019. Source: Unacast, Safegraph, Opentabl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추적을 기반으로 한 세이프그래프와 우나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소매점 이용 추척치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Oxford Economics Recovery Index

The consulting firm's combined economic, financial and health index has moved slowly in recent weeks, remaining roughly flat since August but falling of 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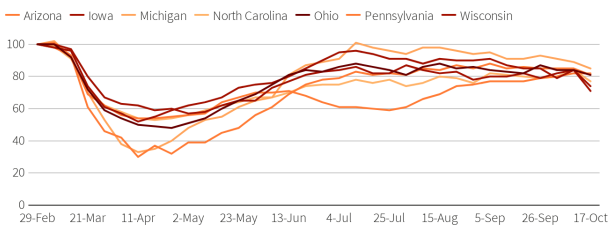
Note: Source: Oxford Econom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픈테이블의 자료에 따르면 식당 이용 지수는 초가를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 2주 동안 하락했다.

Swing states go south

An Oxford Economics state index that rebounded in the spring and summer has begun weakening in the states likely to decide Tuesday's presidential election. Several have seen new surges in coronavirus infections.



Source: Oxford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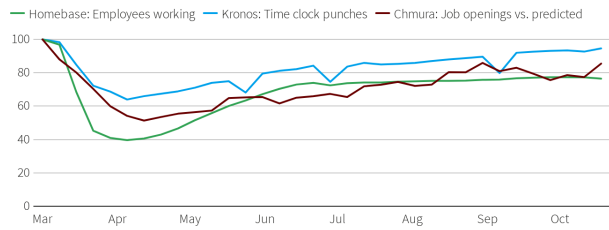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에 대한 자료는 혼조적이다.

인디드 하이어링 램프와 크무라 일자리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그러나 홈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소상공업 자료에서는 개점한 기업 수, 취업자수, 노동시간 등이 3주 연속 모두 감소했다.

Jobs in real time

High frequency data has become important to policymakers amid a fast-moving pandemic. Data on employee time and job openings show the progress of labor market improvement.



Note: All data indexed to March 1. Source: Homebase, UKG, JobsEQ by Chm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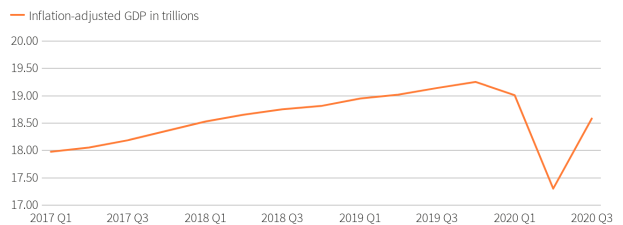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까지 한 주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인디드의 계산에 따르면 75만 1,000명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가 교착상태에 있고 코로나 19는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제적 취약성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A rebound, not yet a recovery

The U.S.'s record setting jump in Gross Domestic Product over the past three months came off a record setting decline in the prior period. It leaves the U.S. economy roughly where it was in early 2018.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11월 3일 대선이 깔끔한 결과와 함께 통합된 정부를 만들어낼지 미국을 더 분열시킬지도 지금 미국이 직면한 커다란 불확실성이다.

(초점)-올해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2016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뉴욕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여

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가짜 뉴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만약 여론조사가 항상 옳다면,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선에 출마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는 지금의 바이든 후보처럼 주와 전국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트럼프를 앞질렀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가 2016년때 조사보다 더 신뢰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 여론조사의 트럼프 지지 기반 파악이 개선됐다

지난 2016년 트럼프의 승리는 여론조사 기관들로 하여금 미국의 서베이 방식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트럼프를 선호하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집단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수정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여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들의 서베이 샘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집단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공화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여론조사의 문제였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퓨리서치는 2016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44%가 고졸 이하 백인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이터/입소스를 포함 많은 여론조사가 모든 미국인들의 교육 수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서베이 자료에 교육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는 만약 여론조사에서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고졸 이하 성인 응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자동적으로 관련 응답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 이들의 의견이 조사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소스에서 정치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잭슨은 "백인 미국인들이 항상 교육 수준에 따라 양극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소스 등 여론조사 기관들은 2016년 이후,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줄어든 부동산

2016년 대선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두 후보 모두 인기가 없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선거운동 마지막 주까지 유권자 20%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미 미국 정치가 불안정했던 해에 큰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10월 한때 큰 격차로 선두를 달렸던 클린턴 후보는 마음을 정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선거일 직전에는 우위를 거의 잃었다.

올해의 경우 부동산 유권자들은 큰 우려사항이 아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7% 미만으로, 4년 전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치 애널리스트들은 대중이 누구를 투표할지에 대해 훨씬 더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올해 여론조사에 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 애널리스트인 카일 콘디크는 "이번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분명했던 2012년이 더 연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2%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후보는 42%였다. 부동산 유권자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하더라도 바이든 후보를 넘어 서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 주 여론조사에 초점

올해 언론 기관들은 특히 미국의 일부 경합주 여론조사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로이터의

경우, 9월 7일 노동절부터 다음 주 대선일까지 6개의 경합주에서 36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더 많이 이뤄진다고 해서 반드시 지표의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애널리스트들은 더 긴 기간에 걸쳐 의견을 추적할 수 있고 조사 자료에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로이터/입소스 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에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고,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모두 다음 주 선거일날 최종 테스트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개표가 되고 최종 결과가 알려지기까지는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초점)-국고채 2년물 발행, 3년 국채선물 바스켓 조정-5년 선물 활성화로 이어질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내년부터 시작될 국고채 2년물 정례발행이 국채선물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채권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고채 2년물 발행을 통해 3년 국채 선물의 바스켓 대상 채권 조정, 5년 국채 선물 활성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국고채 2년물의 시장 안착과 국고채전문딜러(PD)들의 협조 등 국채선물 제도 개편을 위해 충족돼야 할 조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년물 발행, 3년 선물 바스켓 조정 기폭제 되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부담 완화, 단기 지표금리의 안정적 설정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고채 2년물 정례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국고채 20년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년물 물량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국고채 2년물의 신규 발행과 20년물 발행 규모의 점진적 축소로 요약되는 기재부의 국고채 라인업 교체는 최적의 헤지 기간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유발할 수 있는 결정이다.

내년부터 새로워질 국고채 라인업 중 현물채권 만기와 연동한 국채선물 기간 구조가 없는 건 2년물과 20년물, 30년물이다.

20년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외로 치고 30년물은 기재부가 중·장기적으로 선물 상장 계획을 공표한 상황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2년물과 5년물이다. 2년물은 당장 이자율스왑(IRS)이나 대차매도를 빼면 적합한 헤지 수단이 없다.

5년물의 경우 5년 선물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5년 선물은 지난 2003년 8월 상장됐지만, 지난 2007년 6월 4일 100계약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3년 국채 선물의 바스켓 조정을 통해 5년 국채 선물의 빈자리를 채워왔다.

현재 3년 선물의 바스켓 대상 종목은 지정 시점(해당월 최종거래일) 현재 잔존만기가 1년 이상 3년물 또는 5년물이다. 3년 선물의 바스켓에 5년물이 섞여 있다 보니 그만큼 5년 현물 채권 거래 유지에 도움이 됐다. 5년 만기 현물 채권 거래에 대한 헤지는 3년 선물과 10년 선물의 비율 조정을 통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헤지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년 선물의 바스켓에 5년물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3년 선물 바스켓 채권에 5년물이 포함되다 보니 5년 선물이 차별화되지 않아 시장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기재부가 3년물로 국고채를 발행하는데 3년 국채 선물의 바스켓 대상 종목에서 5년물을 빼면 헤지의 유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현재 3년 선물의 듀레이션은 2.7년으로 5년물을 바스켓 대상 종목에서 뺐을 때 듀레이션이 2.4년까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2년물 국고채 발행은 이 모든 논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3년 국채 선물 듀레이션 축소의 명분이 생겼다.

3년 국채 선물의 바스켓에서 5년물을 빼 듀레이션을 2년에 가깝게 맞추면 5년 선물을 차별화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듀레이션이 2년에 가까운 3년 선물과 새롭게 활성화된 5년 선물, 그동안 폭발적 성장을 보여준 10년 선물 시장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면 이자율 기간구조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률곡선 베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유동성은 오히려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기재부의 국고채 2년물 발행은 3년 국채 선물의 바스켓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3년 바스켓에서 5년물을 빼고 2년물과 듀레이션이 2년 조금 넘는 채권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거래소는 국채선물 제도에 손을 댔다가 잘되고 있는 3년 선물이 흔들리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2년물 지표가 새로 생기는 만큼 3년 바스켓 조정과 5년 국채선물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 2년물 유동성 확보·PD 부정적 인식 극복 관건

다만 국고채 2년물의 발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채선물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5년 선물 활성화에 대한 PD사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5년 선물 시장 조성의 핵심인 PD사들이 제도 변화에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면 거래소나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B 증권사의 한 PD는 "기본적으로 한은이 통안채를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2년물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2년물이 발행돼 봐야 알 텐데 월 2

조원 이하라면 선물을 도입하기에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물은 주인이 없는 채권이라 3년 선물 바스켓과 관련해 엮어서 거래되는 정도"라며 "듀레이션이 짧아진 3년 선물은 여전히 잘되겠지만 5년 선물 활성화는 시기상조로 보이고, 오히려 5년물이 20년물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기재부는 현재 국채선물 제도개편과 관련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고채 2년물 발행 결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일단 국고채 2년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2년물 국채 발행과 관련해 기재부와 사전 협의된 부분이 없어 국채선물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채권들도 만기에 딱 맞춰 파생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과 소통하며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선물 제도 개편과 관련한 건 국고채 2년물이 정착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야기 같다"며 "현시점엔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초점)-위안화 앞지르는 원화 절상..시장 쏠림 징후 일까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위안화를 추종하며 절상 압력을 키워온 원화가 최근 위안화보다 빠르게 절상하면서 외환시장 내 경계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위안화 대비 원화는 9월 저점에서 최대 약 4% 절상됐다. 위안화 영향권에 포함된 원화는 위안화와 강한 동조 현상을 보이지만, 최근 위안화 대비 원화 절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자 시장 쏠림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위안/원(CNH/KRW)은 168 위안대로 올해 1월 수준이다.

▲ 원화, 위안화보다 강세로 갈 이유?

최근 양호한 한국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속적인 수출 개선세(일평균 기준), 3분기 경제 성장을 호조, 각종 심리 지표 강세 등 코로나 19의 성공적인 방역 속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 모습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속에 원화 강세 전망에 힘이 붙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보다 원화 절상 속도가 가파른 데 대한 의문은 남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의 1.9% 성장을 전망하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국가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근 10년 만의 최고치인 8.2% 성장을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1.9% 역성장을 전망했고, 내년에는 2.9% 성장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차별성을 보이지만 중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쌍순환 정책과 금융시장 개방 등에 따른 역내 자금 유입 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고, 그 결과 위안화 강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정책 유인에 기반한 위안화에 비해 그렇지 않은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데는 펀더멘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시장 여건을 보면 원화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상황일까 하는 의문이 들며 다소 과하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외환 당국 역시 위안화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원화 절상 속도에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7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원화가 위안화 등 글로벌 통화 움직임이나 국내 외환 수급과 큰 관련 없이 시장 심리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서 필요시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 당국은 최근 원화의 일방적인 강세를 견인할 만한 수급적 특이요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위안화보다 원화의 상대적 절상 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외환 당국은 국내 펀더멘털에 기인한 경상 수급과 함께 외국인 자본 유출입 흐름을 감안해 수급 동향을 평가한다.

지난 9월 무역수지가 2년 만의 최대인 8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주식·채권 자금은 동반 이탈했고, 10월 무역수지 흑자는 전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본 흐름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원화가 거센 절상 압력을 받는 데는 원화 전망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적 수급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즉 달러/원 전망 변화에 따른 역내 수급 업체들의 달러 포지션 정리 및 역외 투자자들의 환 헤지 포지션 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역시 주요 외환 수급으로 해석하며 최근의 원화 강세를 설명한다. 다만, 당국은 이를 심리 쏠림에 따라 발생하는 플로우로 펀더멘털에 기인한 수급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당국은 최근 원화 절상 속도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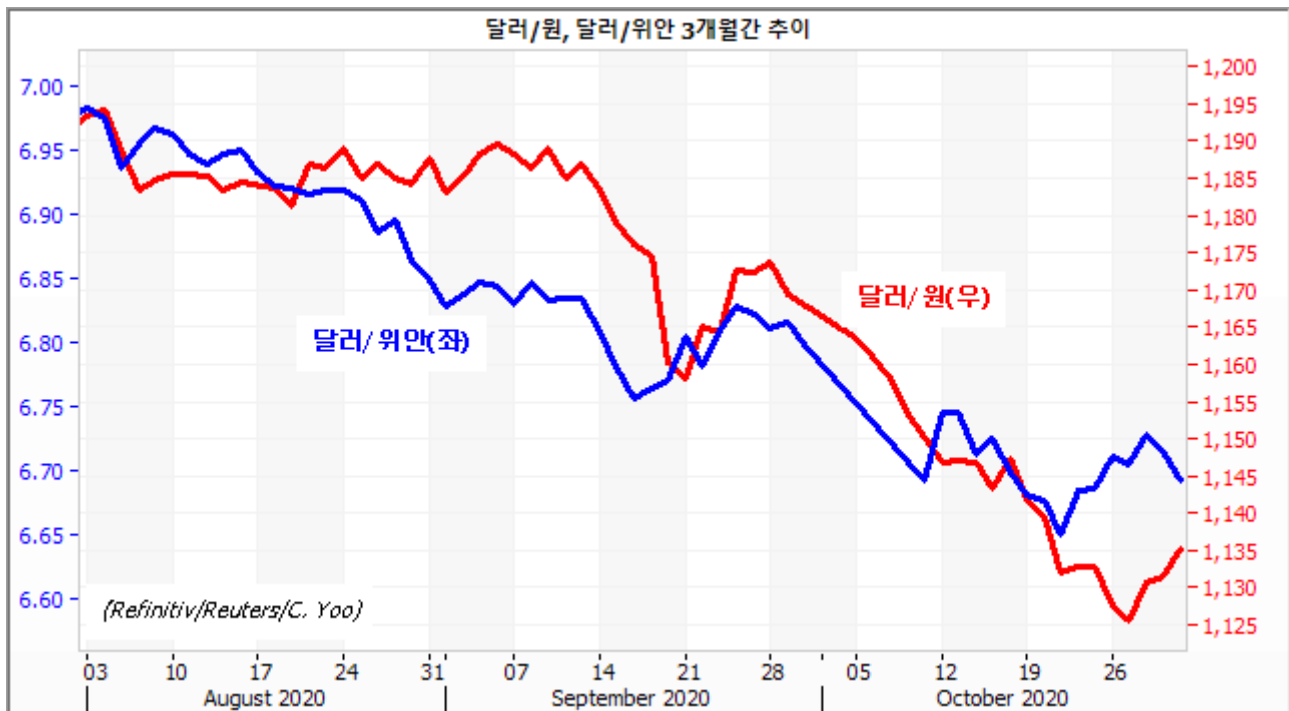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국제 투자자들의 원화에 대한 롱 포지션은 2017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안화에 대한 롱 포지션은 축소됐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내수 중심 성장 전략 변화에 대한 기대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만큼 원화가 완전히 동조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시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를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펀더멘털과 괴리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당국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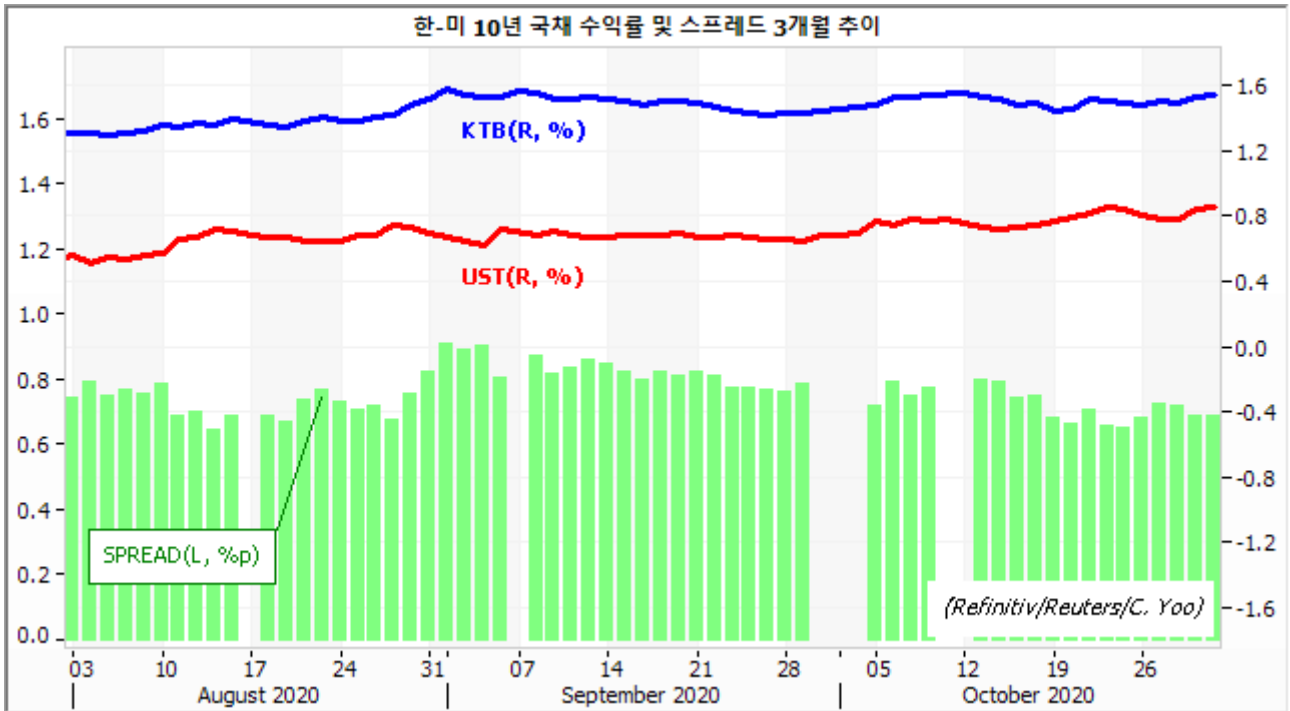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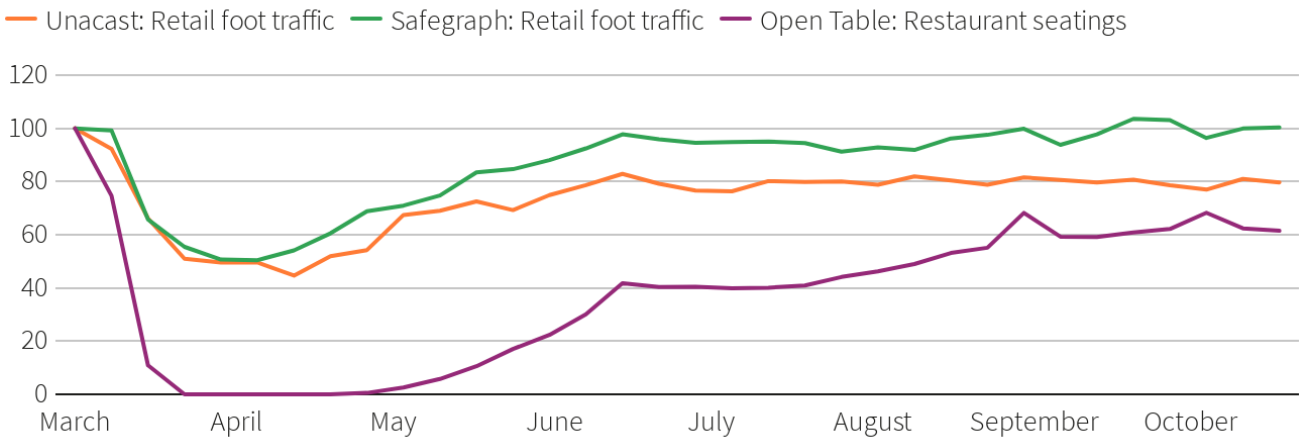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Retail in real time

High frequency data has become important to policymakers amid a fast-moving pandemic. Data on retail foot traffic and restaurant seatings show changes in economic activity. The trend has mostly been flat.



Note: All data indexed to March 1. Opentable data reflect weekly average percent of seated diners versu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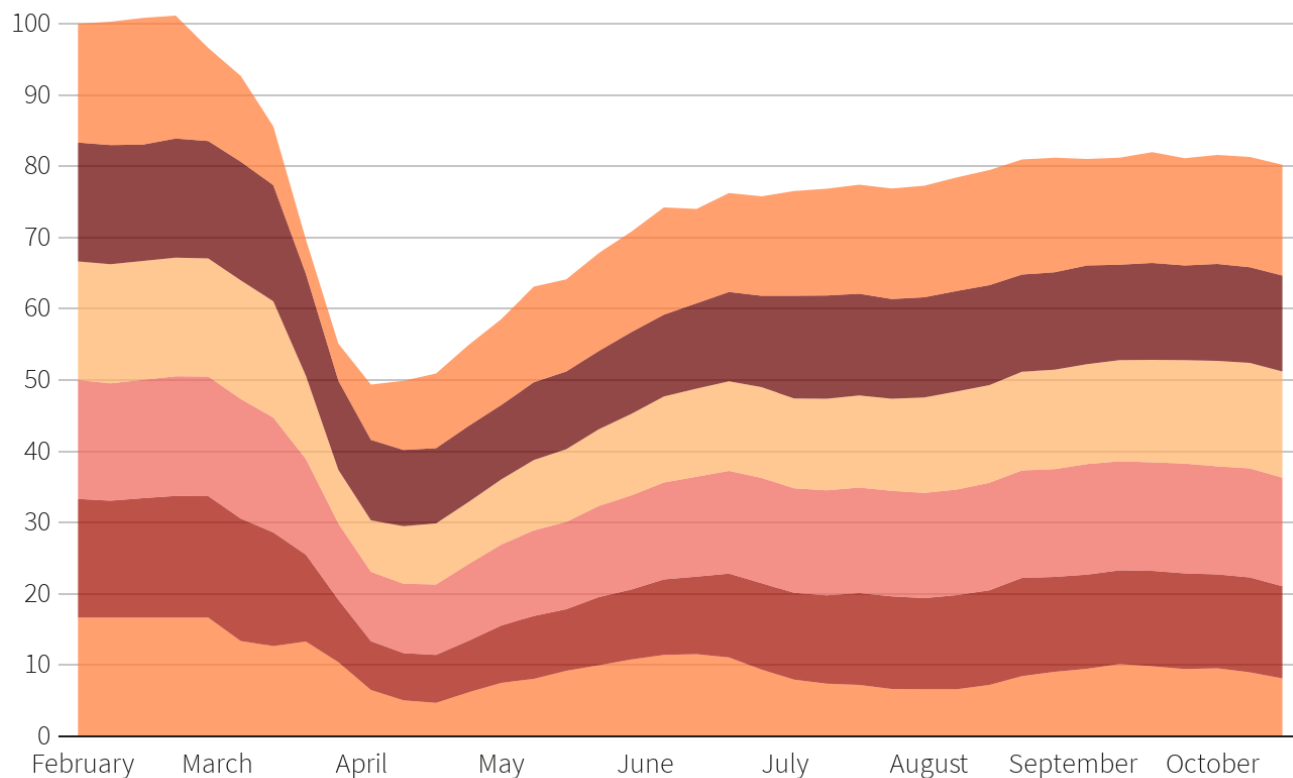
Source: Unacast, Safegraph, Opentabl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Oxford Economics Recovery Index

The consulting firm's combined economic, financial and health index has moved slowly in recent weeks, remaining roughly flat since August but falling of late.

Health Mobility Demand Employment Production Finan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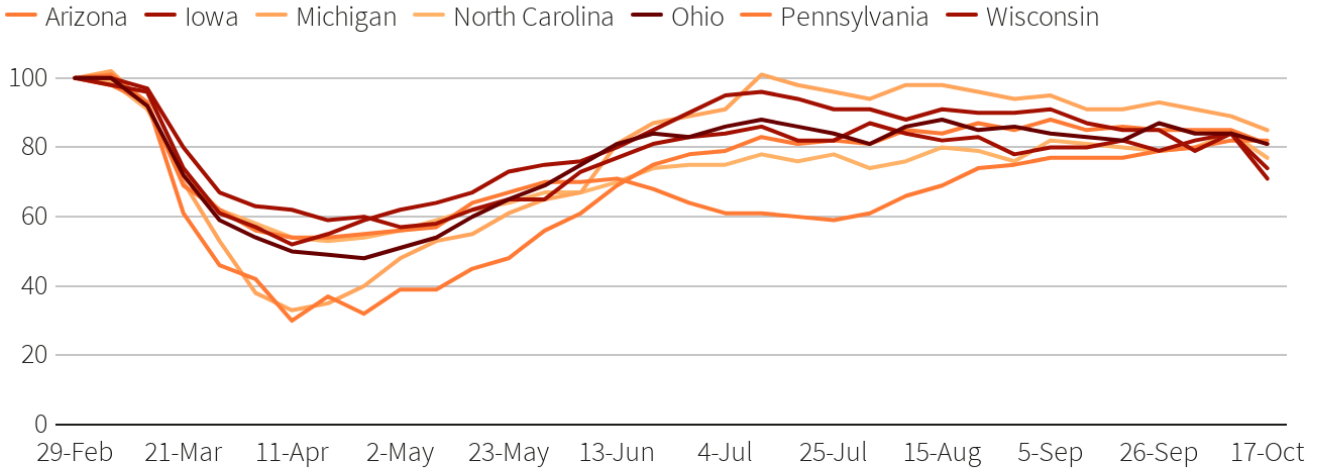
Note:

Source: Oxford Econom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wing states go south

An Oxford Economics state index that rebounded in the spring and summer has begun weakening in the states likely to decide Tuesday's presidential election. Several have seen new surges in coronavirus inf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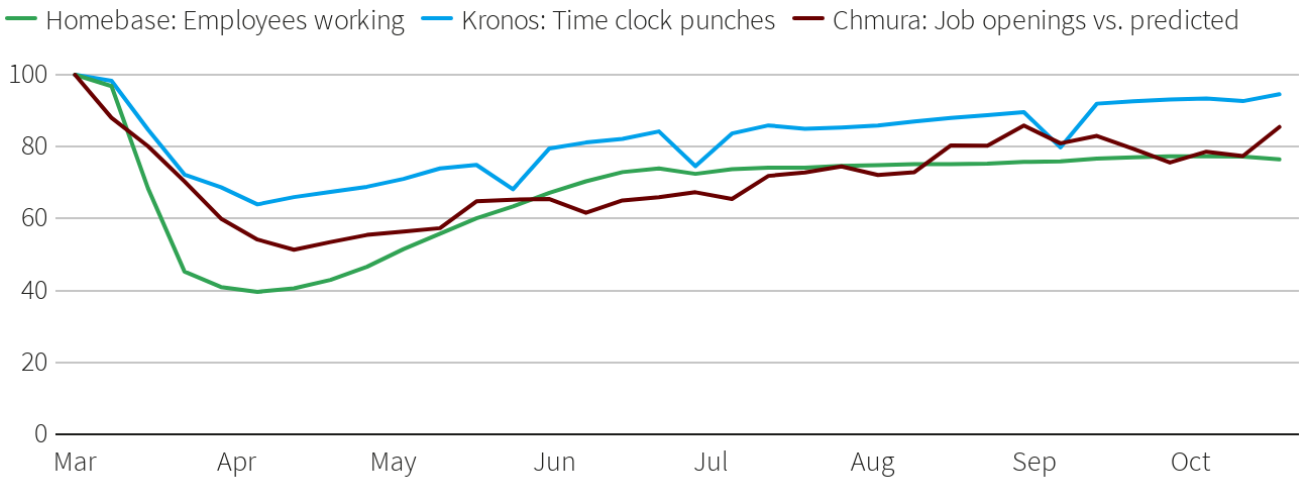


Source: Oxford Econom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Jobs in real time

High frequency data has become important to policymakers amid a fast-moving pandemic. Data on employee time and job openings show the progress of labor market impr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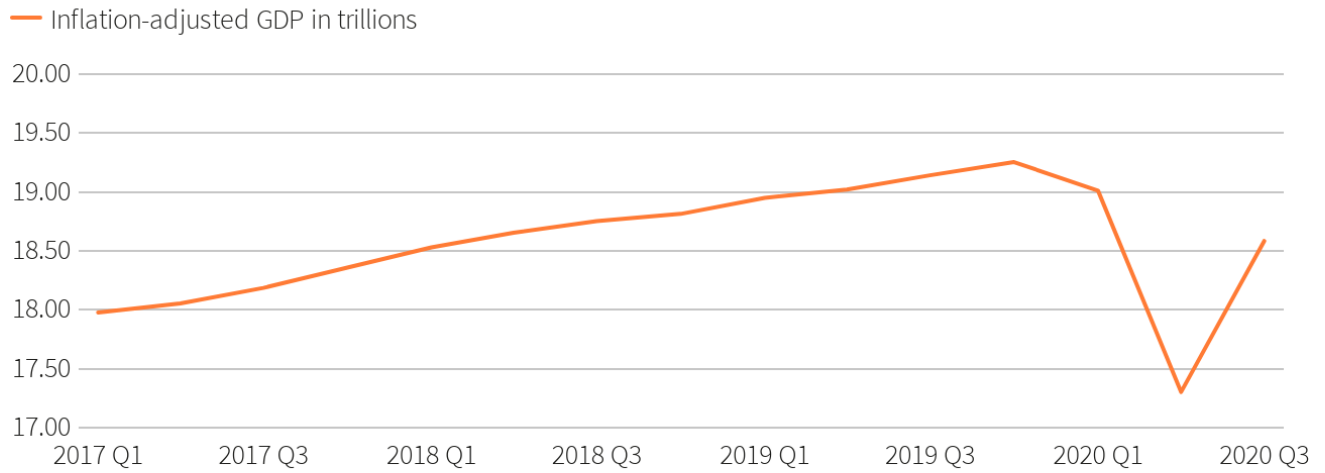
Note: All data indexed to March 1

Source: Homebase, UKG, JobsEQ by Chmura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 rebound, not yet a recovery

The U.S.'s record setting jump in Gross Domestic Product over the past three months came off a record setting decline in the prior period. It leaves the U.S. economy roughly where it was in early 2018.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